

작품명	소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삶의 세목을 촘촘하게 결정짓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질 때, 각각의 개인은 어떻게 적응과 극복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담백하고도 간결한 문장에 지금의 한국 현실을 알리는 상징적 표현들이 긴장감 넘치게 배치되어 있다.
「리틀 프라이드」	「리틀 프라이드」는 매력이 자본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젠더적 정체성과 진정성이 처한 위기의 단면을 그리고 있는 문제적 작품이다.
「혼모노」	세속과 무속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세대 교체와 인정 욕망, 진짜와 가짜에 대한 끈질긴 탐구가 돋보인다.